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2015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목차]

강기윤 국회의원	4
강은희 국회의원	5
김기식 국회의원	6
김동완 국회의원	7
김성주 국회의원	8
김영우 국회의원	9
김우남 위원장	10
김제식 국회의원	11
김태년 국회의원	12
김한표 국회의원	13
김현미 국회의원	14
문정림 국회의원	15
민병주 국회의원	17
민홍철 국회의원	18
박남춘 국회의원	19
박대출 국회의원	20
박병석 국회의원	21
박원석 국회의원	22
박혜자 국회의원	23
배덕광 국회의원	24
서영교 국회의원	25
서용교 국회의원	26
신동우 국회의원	27
신정훈 국회의원	28
심재권 국회의원	29
안효대 국회의원	30
양승조 국회의원	31
오영식 국회의원	33
오제세 국회의원	35
우상호 국회의원	36
우원식 국회의원	38
우윤근 국회의원	39
유성엽 국회의원	40
유승희 국회의원	41

윤재옥 국회의원	42
이노근 국회의원	43
이명수 국회의원	44
이상일 국회의원	45
이상직 국회의원	47
이운룡 국회의원	48
이인영 국회의원	49
이정현 국회의원	50
이종배 국회의원	51
이철우 국회의원	52
이한성 국회의원	53
이헌승 국회의원	54
장윤석 국회의원	56
전병헌 국회의원	57
정세균 국회의원	58
정호준 국회의원	59
주승용 국회의원	60
주호영 국회의원	61
천정배 국회의원	62
최민희 국회의원	63
추미애 국회의원	64
홍문종 국회의원	65
홍일표 국회의원	67
황주홍 국회의원	68

강기윤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문

지난 헌정역사상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에서 공화제 국가로서의 민주정치로, 또 정치 메커니즘의 정점에 있는 국회가 선진적 민주의회로서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이렇게 번듯한 정치인프라를 이뤄냈지만, 국회가 근본적으로 주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과제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의문점에 대해선 자체 쇄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국회가 자정(自淨)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주권의 주체인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했던 과정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국정감사모니터링, 더 나아가 자율적 시민참여운동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안착시켜, 국민들이 자유 · 민주 · 책임의 온전한 주체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順機能)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正道(正道)를 걸으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국민의 주권으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 국민과 함께, 또 서민과 함께, 그리고 근로자와 함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기본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동시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강 기 윤

강은희 국회의원

수상소감

강은희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모범·우수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자로도 선정해 주신 것은, ‘잘해서’ 라기 보다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 ‘잘 하라’라는 의미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행복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국민행복’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행복, 청소년들의 행복, 청년들의 행복, 엄마들의 행복 그리고 아빠들의 행복을 하나씩 모아 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 의원을 격려하는 일은 유권자의 권리와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1천여명의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부족함과 한계도 많이 느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라도 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또한 4년 연속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20일 동안 감사 현장을 지키고 꼼꼼히 평가해주신 현장 모니터 요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꼼꼼하게 살피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민생경제,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 충실히 국정감사를 준비했으며, 특히 “한번 제기한 사안은 끝까지 쟁긴다”는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행정부가 자의적 행정권을 남용해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각 부처의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현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수정을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결과를 챙겼습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채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의정활동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문을 처음 들어섰던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첫 마음 그대로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장을 함께 한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사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NGO국감 모니터단 2015 국감우수의원 수상 소감

국회의원 김동완

가장 권위 있는 국정감사 종합평가단체인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2년 연속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감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입니다. 국가 권력의 작용을 행정, 입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하도록 한다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있어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들이 바르게 행정부에 집행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국정감사가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되거나, 폭로성이나 한견주의 분위기로 흐를때가 있습니다. 이는 깊이 있는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도를 넘는 자료거부와 불성실 태도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감이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회의 권위와 권능의 약화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저는 2015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각별한 위기의식을 갖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보좌진들과 국정감사 이슈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1년간의 행정부 생활을 통해 배운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칙에 충실한 국정감사준비가 결국 좋은 성과를 내게 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입법활동, 예산안 심의와 함께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구성되므로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성주(보건복지위원회)

먼저 2015년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님들과 평가위원님들, 그리고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로서 많은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국민들이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국가, 패자부활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된 나라,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본인의 의정활동 철학을 국정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사각지대로 몰린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나라를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60%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전체 가구 중 80%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평균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과도한 민간의료보험 의존 막고,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3저 문제’ 해결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가난하지만 수급자가 못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복지를 동정과 시혜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은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부 감시권을 행사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께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보편복지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영우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김영우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출신 김영우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느라 국정감사 일정동안 현장을 지키고 함께 고생하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저의 지역구인 포천·연천 지역 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각별합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감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국회 일정으로 잠시도 쉴 틈 없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연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 느끼고 개선하고 싶었던 것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외교는 너무 안보에만 치우친 것 같아 안보를 생각하는 전략적 경제외교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통일에 있어서는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아직도 계류중입니다.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늘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천·연천 주민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남은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하라는 의미로 새겨듣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회의원 김영우 올림

김우남 위원장

국정감사 우수위원장 수상 소감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17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에서 저희 위원회와 저를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회'와 '국감우수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셔서 무한한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수상이 앞으로도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채찍이라고 여기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9대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행해진 저희 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및 소관기관의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이행률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국감을 이끌어가는 상임위원장 역할만이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발굴하는데도 직접 나섰습니다.

특히 돌고래호 참사, 고독성 농약, 농경지 중금속, 감귤명품화, 국립 해사고 설치, 재선 충병 방제, 해양폐기물, 유해사료 문제 등 각종 저희 상임위원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및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수상 영광을 감사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한 국회사무처와 피감기관 직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서산태안 국회의원 김제식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등 2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의 수상은 더욱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상은 국민과 밀접한 문제, 민생을 위한 문제에 대해 개선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에게 값진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질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처음처럼 한결같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를 통해 제기된 보건의료 체질개선과 국가보장성 확대문제, 취약부분에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메르스 후속대책 및 영세상인 보상문제, △셀프성형 등 유사의료기기의 안정성 문제,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성, △신종 사무장병원(의료생협) 문제를 비롯해,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분만취약지 선정, △중증건선 산전특례 적용, △장애인 접근문턱을 낮추는 문제(BF 인증)등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민생정치를 실현하고, 더 낮은 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김제식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소감문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입니다.

3년 연속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7년의 전통과 권위를 바탕으로 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영광입니다.

빡빡한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국정감사 전 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엄정하게 평가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니터위원의 날카로운 눈빛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끝까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전례 없는 모바일 여론조사를 도입·활용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무려 교원 5만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화된 근무여건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교원이 많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무급휴직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위법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마침내 정부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NGO모니터단이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광에 걸맞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국회의원 김한표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익 증진과 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은 지난 6월 수상한 「대한민국국회 헌정대상」의 의미와 함께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조언으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고민하며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에 임했던 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어업인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방안 등 국민 생활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위기에 빠진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또한, 단순한 비판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4년 가까운 시간동안 정책, 입법,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희망의 정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회의원 김 한 표

김현미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현 미

새정치민주연합 일산서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현미입니다.

제19대 국회가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5년은 제19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연도라 더욱 바쁘고 쉴 틈 없는 한해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기쁩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은 17년 전통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단체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NGO모니터 단에서 수상해주셨기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을 위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30대 기업 등 재벌·대기업일수록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는 등한시하며 고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급격히 낮아져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부를 쌓아두고도 고용과 투자를 등한시 하는 재벌·대기업에 정부의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력한 세율로 사회에 환원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동안 지적해온 정부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국정감사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다양한 경제 현안과 문제점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림 국회의원

<2015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문 정 림(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비례)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지난 17년간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를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제 진정성과 노력에 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후 맞이한 네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2015 국정감사는 지난 세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안을 발굴, 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실국감이 아닌 내실국감을 지향하였고, 언론을 의식한 선정적인 주제는 지양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언론의 조명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집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결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선정에 있어 자극적인 이슈를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대안 제시 없이 폭로에 그칠 수밖에 없는 주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진정성이 역설적으로 언론의 호평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법적 보완책을 제시한 점, 지방 및 농촌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추이를 제시하여 수도권-지방 간, 도농 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함을 지적한 점,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합대책을 제시한 점, 탄산음료·과채음료 등의 당 과다섭취 문제를 지적한 점,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을 제시한 점,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 점, 국민연금 3년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금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성을 지적한 점,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와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한 점 등이 주

요 방송사 및 일간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또한 NGO모니터단 여러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는 뒤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기한 문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정감사,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모니터링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릇된 공명심을 앞세우지 않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수상소감

국회의원 민 병 주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시상식이 많은데요. 제 주변에 많은 의원께서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선정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17년간 꾸준히 국정감사 기간 현장모니터위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보다는 더욱 잘해야겠다는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돌아해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을텐데도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다른 정치적 쟁점보다는 그야말로 정책에 집중해서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한 것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제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덧붙여 국정감사기간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니 한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모니터위원·평가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해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성대하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270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산대사의 한시(漢詩) 중에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행동과 몸가짐이 언제나 후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을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국민들의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정치인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의 목표를 ‘생활국감’·‘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서류상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법·제도 개선, 기관 운영 혁신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투철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으로 매년 양질의 민생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감 기간 내내 ‘공정검증’에 힘써주고 계신 평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17년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목)

국회의원 민 홍 철

박남춘 국회의원

2015년도 우수국회의원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구갑)입니다.

먼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하며 국정감사에 대한 냉정하고도 공정한 심사로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올해에도 귀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16년 전통의 국감종합모니터단으로 천여명의 현장모니터단의 의견과 정책질의의 전문성, 정책대안의 실효성, 정책자료집 등의 충실성 그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시정회신' 등의 자료를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매년 엄정하게 선정·시상해오고 있어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9대 국회 4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겨주셔서 영예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기 보다는 절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것 같아 한편으로는 송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입법부로서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해왔고, 기본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전자정부·유비쿼터스 사업에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공백 및 무보직자 급증 문제 △경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실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환경 개선 문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전 검토용역 조작 문제 △사전선거투표함의 허술한 관리실태 등 국민의 혈세낭비와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에 국정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선의원으로서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국회 본연의 역할인 국정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지역민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7

국회의원 박 남 춘 (인천 남동구갑)

박대출 국회의원

□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남 진주갑 출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입니다. 바쁘게 201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2016년을 꿈꾸며, 희망으로 가득한 날들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모범·우수국회의원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범·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신 동료, 선·후배의원들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올곧은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날카로운 눈과 귀로 국정감사 기간을 함께 해주셨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엄정한 기준을 통과하고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영광과 기쁨의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오늘 주신 영광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의 유통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위원회' 설치와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별 특허 획득 및 상용화 현황'을 심도있게 접근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교문위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욱 노력하여 의정활동에 매진, 한 단계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견인하는데 미력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이 부족한 저에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라는 영광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언제나 국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 대출

박병석 국회의원

<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

국회의원 박 병 석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운영과 경제정책 전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정책당국자와의 소통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시작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국정감사 내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국정감사 이후 즉각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으로 개인적으로는 13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앞으로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NGO 모니터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대인 NGO 모니터단 단장님을 비롯해 1000여명이 넘는 모니터 요원들이 국정감사를 철저히 평가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도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석 국회의원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먼저 저를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과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늦게까지 고생하신 김수경 모니터단 청년위원장님을 비롯한 600여 분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입니다.

역대로 보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였고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비판·견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내홍으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NGO모니터단에서도 이번 국감 전반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모니터단’에서 저를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셨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을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서 더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힘쓰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2.10
국회의원 박 원 석

201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주는 상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여러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1천여 명의 모니터단,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첫째, '차별 없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동일한 학교급지 내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의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일부 국립대학의 과다 전형료 문제를 지적하여 해당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 하향조정 및 장애인특별전형료 면제를 약속받았습니다.

둘째, '보편적 문화정책'의 도입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의 홍보가 미흡한 점, 참여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지적하여 문화정책의 지방소외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성범죄자 알림e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청소년유해물 판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재고하도록 유도하고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수정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70여 시민사회단체와 '국감NGO모니터단'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덕광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수상소감

부산 해운대·기장 갑 출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입니다.

지난해 7·30재보선으로 국회에 등원한지 1년만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날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된 날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은 날이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고생하셨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627개의 피감기관 감사를 평가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주요 역할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정략적인 논쟁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비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만든 해킹방지법의 무용성, 불륜조장사이트 수수방관, 아이폰의 비상식적인 리퍼정책, 혼탁한 홈쇼핑 채널,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문제 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받는 이 상을 계기로 더욱 해운대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 국회의원 서영교

먼저 19대 국회 4년동안 국민의 위한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단장님과 1,000여명의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270여 사민·사회단체,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온오프라인에서 국감활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그동안 국회 내·외부를 떠나 가장 권위있고 공신력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서울과 지방을 함께 오가며 때론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국민을 대신해 국정감사를 지켜봐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이라 그 어떠한 수상보다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19대 국회 4년 동안 99%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 바로잡고 그 해결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노고가 더욱 빛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 99%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을) 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니터단의 활동은 내실 있고 알찬 국정감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뜻 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더욱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했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성과보다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후회가 앞섭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남구을)

신동우 국회의원

국감우수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5년도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할 나위 없는 의정활동의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일정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흡을 같이 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4년간의 국정감사에서 오로지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로 국민이 호응하는 내용들을 다루어, 진정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소액연체로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에 하는데 3년이 걸리는 불합리한 부분 등 개인 신용등급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으로부터 제도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수금수수료 폭리개선 · 렌탈총비용과 일시구매가 비교제도 도입 · 외제차 보험제도 개선 · IT업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능력발주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년 수고하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신동우

신정훈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국회의원 신정훈

지난 7.30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지 1년여 만에 이런 큰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의정활동이었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듯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감이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좀 더 생동감 있는 문제제기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FTA피해액이 축소된 정황을 집중추궁하고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어민대책을 촉구해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발직불금 인상에 기여한일

중국과 태국의 수입쌀의 저가 방출이 국내쌀값 하락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따져 물어 국감이후 국내 쌀 20만 톤의 시장격리와 정부매입 계획을 이끌어 낸 일

세월호 선체 인양회사 선정의 비전문위원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여 세월호 문제의 여론을 재환기 시킨 일 등이 주요 성과로 기억됩니다.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국회의원

수상소감 담당자님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했을 뿐인데 수상 소감을 쓰려고 하니 쑥스럽기만 합니다.

2016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심재권 드림

안효대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한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가끔 자문해 보곤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확대, 한국선급의 인사 편중, 농촌진흥청의 밀수농약 근절대책, 농협의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 소홀, 천일염 염전 바닥재 유해물질 포함, 4대 항만 방호요원 총기지급률 저조 문제 등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고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2015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안과 갈등 사안이 많아 여야를 막론하고 훌륭한 동료 의원 분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좋은 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입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이며 아동학대, 백수오 사태, 메르스 유행, 의료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건복지문제,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과제 속에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대응 무능에 이어 반복되는 아동학대,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건강기능식품 관리 미숙, 메르스 대응 실패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 무능, 무책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그리고 의약품, 식품, 화장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편, 보건복지, 의약품, 식품 전반에 걸친 종합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임하여 동료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3선 답지 않게 성실하다”는 평가와 모범적인 국감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의정활동의 화두입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는 토로가 많은 현실에서 그래도 다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가 조금은 공허할 지도 조금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뇌염 백신 도입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부실한 관리를 했다는 점을 단독으로 확인 보도했으며, 집을 세 채 이상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점을 드러내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공단과 엘리트 간의 교환문서를 찾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7년째 동결 중인 건보료 상한액 문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감염병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 무항생제 우유 과장광고 문제, 미성년자에 대한 색조화장품 광고 문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부실,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약 지원 부족,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외면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 부양의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이 계속되는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의제화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자리를 이석하지 아니하고 선배 동료의원들의 질의, 관계기관의 응답까지 꼼꼼하게 경청하며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짧은 구두 질의의 시간적 제약으로 다하지 못한 사안들은 상세한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현실분석을 바탕으로 단순한 국정 비판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준비해왔고,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이끌어가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신 여야 동료의원님들이 모두 훌륭한 활동을 해주셨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목표로 진지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시상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동료의원께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참여단체 그리고 회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의 온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국회의원 양승조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목표를 ‘갑’의 횡포에 신음하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현안을 챙기는 국정감사,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정감사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발전5개사가 건설 중인 1,000MW급 화력발전소 공사비가 과소산정 되었으나, 하도급법 위반 관행으로 인해 그 손실을 하도급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발전플랜트 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대형건설사-하도급업체 간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를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 입찰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해당업종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공동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사업을 함께 진행한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대기업의 갑질을 지적하고, 양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보상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줄속으로 추진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민적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점, 전기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해이 사례를 지적한 점,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총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 등은 앞으로 산업부 및 산하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성과가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9대 남은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는 잘 살려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미처 보지 못한 문제들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느라 애쓰신 NGO모니터단 및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애정과 관심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오영식

오제세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오 제 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 하면서, 270여 시민 ·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었지만, 하반기 국회에는 17·18대 국회 시절 몸담아 왔던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와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강조했던 부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대한민국 양극화 심화 문제, 해외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의 지하경제 규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저출산 · 고령화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인한 부의 편중과 더불어 거대한 규모의 지하경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미래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닌, “바보야, 문제는 분배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비단 끝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중산 · 서민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 이를 통한 소비, 생산, 투자 증대를 통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 · 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국회의원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우상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우선, 17년 신뢰와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주는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인 국정감사였던 만큼 이러한 가운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는 것에 더욱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띤 장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집집마다 들어오는 방송통신의 공정성·공영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집요하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비판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시행에 대해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꼭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 싶었기에 더욱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조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시작한 사업들이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있어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향해 더욱 따끔한 질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 운영을 점검하고자 정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원자력 안전 검토보고서의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 최초로 발견해내고 원자력 안전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더욱 건전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감동, 그리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과 같은 공영방송 운영진에게 방송 공정성 및 공영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 사기를 진작시켜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연구개발에만 집중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각종 통계와 지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계 문제점들을 진단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칫 미흡하거나 아쉬웠던 점들은 이후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민생과 민주주의, 국민 복지와 행복을 위한 길의 가장 선두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입니다. 우선 저의 국회의원 임기 8년 동안 8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평가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신 '국정감사우수국회의원상'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하시고 평가해주신 상이라 더욱 값진 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탐색하는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아이와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을 중심으로 '노동'과 '환경'의 기본가치를 찾는 국정감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이 제일인 국정감사”라는 주제로 ‘을(乙)을 위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민생,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무너진 영세 자영업자의 민생, 기타 갑(甲)의 부당, 불공정행위로 인해 무너진 을(乙)의 민생을 살리기를 3대 과제로 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200여 곳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자체 조사하였고, 시중노임단가 지급 6%, 노동3권 보호 43%, 고용승계 66%에 불과 등 정부가 만든 지침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을지로위원회 소속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공유하여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 공공기관이 준수하도록 일제히 시정 요구하여 각 장관 및 기관장으로 부터 시정 및 지침 준수 노력 확답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한계와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할 환경부가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에 앞장서서 맹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적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주민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과 제도마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상이 우리사회의 소외받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힘없고 백없는 우리사회의 ‘을’들 위한 정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모범의원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우윤근

국정감사 평가에 있어 오랜 역사와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되어 참으로 기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행정 및 사법제도 운영 감사에 있어서도 ‘99% 중산층·서민을 위한 民生국감’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생생하게 전하고 문제점 개선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첫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전무죄·무전유죄 문제제기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①**국민공감 국감**
- 둘째, 단순한 의혹제기·추측성 문제제기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통계, 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한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통한 ②**정책 국감**
- 셋째, 「**사회적 약자 배려**」, 「**인간을 이해하는 따뜻한 법치**」 등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③**가치지향·미래지향 국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같은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범의원에 선정되었으니 더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유성엽 국회의원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유성엽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읍 출신 국회의원 유성엽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의미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감NGO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온·오프라인에서 1천 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수상자들을 선정,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단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업분야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적, 항만공사들의 지역편중 인사, FTA 체결과 관련되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국감기간 동안 한빛원전 고창·부안 피해평가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불합리성 조사, 항만공사채용 지역할당제 도입 및 항만공사 체제정비 용역 재수행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것이기에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그리하여 한국선급의 경우, 작년의 성과급 지급을 지적, 올해 성과급을 작년에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등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 지적, 앞으로 지역별 고른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하고 우리 농어민들과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습시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임하라는 채찍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승희 국회의원 우수위원 수상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4년 연속으로 NGO단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천명의 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시민들께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뜻 깊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4가지 기조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첫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번의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청년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예산낭비와 비리,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10가지 국정감사 의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2013년 본 의원이 폭로한 KT의 4500억 인공위성의 45억 불법 헐값 매각 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매각 후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둘째,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경제적 약자들의 IT 및 과학기술정책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넷째, 여성과학자를 육성하고, 여성친화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과학기술의 콘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미래사회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여섯째, 통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곱째, 방송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배개선을 위한 노력, 공영방송 이사회의 객관성·중립성 유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여덟째, 건강한 방송시장을 정립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홉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방사선, 방사능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허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원전 감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위상을 바로 세워 ‘국민 위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후 관련 내용으로 총 50여건의 법률안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니 해야 할 책무가 더 늘어난 듯 합니다. 더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 NGO 모니터단에서 주시는 우수위원 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이 되도록 늘 귀와 마음을 열어두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평가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꾸준한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의 부단한 노력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행동 하나 하나와 입법에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런 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더 바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2.10.

국회의원 윤 재 옥(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NGO 모니터링 평가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국회의원 이노근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수상으로 인해 높은 공신력과 권위를 자랑하는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4년 연속으로 받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2015년 국정감사는 처음으로 추석 연휴 전후로 분리해 실시되었고 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었으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리국감에 대비해 3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었고,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제법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또 교량, 학교, 주택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방만 경영의 사례는 없었는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의 여부

셋째,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방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국감에 매진한 결과, 제가 제기했던 몇몇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상당수 즉각 시정하거나 언제까지 시정을 완료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대 국회의 임기도 이제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써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피감기관들이 말대로 실천하는지, 해당 문제는 개선됐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NGO 모니터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7.

국회의원 이 노 근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는 어린이집 아동폭행, 건강기능식품 문제(일명 ‘가짜 백수오’), 메르스 사태 등 유독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렇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매년 지적되듯이 촉박한 국감 일정,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최다 피감기관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하는 등 동료 의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생 밀착형 정책 진단을 통한 ‘정책 국감’의 면모를 보이며 어느 상임위 보다 성숙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국가적 현안들과 갈등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국민을 위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몸을 숙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이명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수

2015.12.

이상일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전국 270여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국감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국정감사장을 많이 지키지 못했던 2012년을 빼면 저는 3년 연속 NGO모니터단이 주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질의내용을 꼼꼼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만큼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제시 능력에서 날카로움과 타당성을 선보이지 않으면 상을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20일간의 국정감사를 하면서 화장실도 정회시간에 가는 등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소관분야의 문제를 치밀하게 따지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온 점을 까다롭기로 유명한 NGO 모니터단이 3년 연속 인정해 준 것 같아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저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석면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석면조사 과정의 점수 누락 등 부실 문제를 지적, 정부가 이 문제를 전면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국 1,100개 산업단지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의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과 방독면, 장갑 등 안전장비가 없는 사실을 밝히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국감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이 개발한 알로하(ALOHA)프로그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학교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보여주며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납은 책걸상의 문제,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의 문제,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의 식민사학을 반영하는 역사지도를 2012년 미국 의회 조사국에 제공한 문제,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들이 100:1 안팎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신기하게 교사나 교원으로 채용되는 문제 등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의원들을 엄정하게 평가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국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훌륭한 상을 수상한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직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을 이상직입니다.

먼저, 17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준비했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적한 사안들은 모두 지난 4년간 상임위를 비롯해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매진해온 경제민주화, 그리고 을(乙)을 위한 정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례로, 카드복제 시연은 신용카드 불법복제가 갈수록 증가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IC단말기 보급이 늦어지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납부하는 국세물납증권이 1,600억원대 손실을 입고 부실매각한 점,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받고 사망·질병 시 카드대금을 면제해주는 DCDS 상품을 회원들에게 어설픈 설명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둔 점 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문제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 격차가 증가한 문제점,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규모가 미미한 점 등을 꼬집으며 대기업과 기득권 보호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기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입법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을(乙)'이 실생활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심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안', 일명 '남양유업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차별과 횡포를 당하는 대리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던 대리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부터 항상 주장했던 소상공인 보호가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가상히 여겨 받게 된 상이라 여기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며 품은 초심 그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상직

이운룡 국회의원

015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운룡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시기였지만, 임기 내내 고민하였던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념 논쟁과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은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안할까를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권, 보증기관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동반성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긴급 주민 간담회를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개선 방안을 촉구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공식발표를 이끌어 내었고, 금융산업 발전 제안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질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였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생활이 편안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장기적 안목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입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노동정책 정상화의 길에 꾸준히 앞장서겠습니다.**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과 열정으로 임했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습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오늘의 상이 칭찬이 아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국감, 불성실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한편, 행정부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달려왔고, 그 진심이 통한 결과가 바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위법성 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훼손시키려 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기상청 기상장비 구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부실관리 실태와 유럽에서 불거진 폭스바겐 배출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환경부의 부실 대응도 질타했습니다.

또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의 팔을 비틀어 강요된 합의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동부에 의해 외면받은 동양시멘트 사태와 노사발전재단의 불법적 해고프로그램 도입, 날로 증가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방향을 잃고 후퇴하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노동인지적 관점의 문제로 제도를 비판했고, 알바 등 근로청소년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근로실태파악의 강화 및 위법사실 신고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여성정책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 아이와 어른, 노동자와 국가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세워주신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국민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이인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 국회의원 이 정 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복으로 불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공복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수국회의원이란 상을 주시니 쑥스럽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시는 상이니만큼, 믿어줄테니 앞으로 더욱 잘 해달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선거혁명이란 수식어가 붙을만큼 용기있는 선택을 해주신 순천,곡성 지역주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하루 5시간만 비면 지역구에 내려간다는 결심으로 최대한 주민들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묵은 정치 지역구도를 깬 신호탄, 동서화합의 물꼬를 텃다는 과분한 관심과 격려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매서운 눈으로 365일 지켜봐 주십시오. 국회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자기성찰의 계기를 만드는데 NGO모니터단이 냉철한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 12. 10

이종배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2015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시고,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이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하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제가 의미 있는 지적을 하고 열심히 활동했다고 평가해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저는 국감을 준비하며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치르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말투, 알맹이 없는 자극적 주제로 주목 받기보단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권력 행사와 인권 보호간의 적정 수준을 찾을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문제, 국회관 열정페이 등을 이슈화 시키며 개선을 요구했으며, 통진당 출신의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아직도 활동 중인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감에서의 단편적인 지적만으로 다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번 우수의원상 수상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산·법안 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2.7.

국회의원 이종배

이철우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이철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단체의 선호도나 단체의 소속감에서 비롯한 수상이 아니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선정하여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그야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국회의원활동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행정부를 책임있게 감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국민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뜻일 것입니다.

국회정보위원회 간사·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당나라 시대 고승인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 상의 수상과 함께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공공기관의 부패를 없애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문경시·예천군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270여 시민·사회단체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저에게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했었던 부패 척결을 중요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의 비리를 중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를 밝히는데 국정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들의 비리는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해치고 급기야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누수되게 만들어 범법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특히 군 고위간부와 방위사업청의 잇따르는 비리는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적행위에 해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고 대책마련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지금 뿌리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할 것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죄행위자의 자복에 대한 처벌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공금횡령, 예산 낭비, 금품수수 등의 각종 공직 비리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와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되는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회의원 이한성

이헌승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을 출신 국회의원 이헌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무와 행정, 입법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째 활동해 오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파악해 왔던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평소에 구상했던 대안과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4년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기 때문에 한 기관의 국정감사에 임하면 마치는 시간까지 한 순간도 이석하지 않고, 국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이석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째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안추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데 주력했습니다.

부산시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이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함으로써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키는 한편, 부산의 중심부를 관통하지만 '뚝천'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동천 재생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고,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부산과 경남이 대립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재평가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간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동남권 항공여객 편의 증진에도 주력했는데,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시 국감에서 김해공항 혼잡문제를 해결하고 새벽 비즈니스와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커피타임(야간 운항 금지)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김해공항 주변 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해 시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고, LH 국감에서는 지연·중단 상태인 주거환경사업지구의 정상화와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 확대, 기금 이율 인하,

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입법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쟁의 장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회의 전당(殿堂)인 국회가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도 촉매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한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0

국회의원 이헌승

2015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張倫碩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받아 '2015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2015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의 영광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항상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매년 국정감사를 준비해왔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 국민 불편해소'를 중점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의 지역 차별 문제, 산하 기관들의 방만 경영 사항 등을 지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모범의원상' 수상을 국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과 격려의 뜻으로 받들어 고향 영주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쉽 없는 정책 개발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수상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영주 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헌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 전병헌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

우선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천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국정감사 전후 3개월 이상 밤낮으로 땀 흘려 평가해주신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어떤 상보다도 수상의 의미가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웁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언제나 국민과 눈 맞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민생우선’, ‘생활밀착형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 그리고 높은 가계통신비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불법영업 실태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위법사실을 밝혀내었고, 이용자들을 역차별하는 대기업들의 이른바 ‘갑질행태’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동작구 주민여러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민생우선’, ‘생활밀착형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2.07.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병헌

정세균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세균입니다.

먼저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법률소비연맹은 24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입니다. 오직 법률교육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평가단체 중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객관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단체로부터, 생각보다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제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5선 국회의원으로서 후배들이 받을 상을 선배가 받게 된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보다 더 열심히 한 동료의원들을 대신해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기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정부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했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한중FTA의 문제점 지적 및 보완대책마련 등에 대해 높게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고향 전북에서 4선을 하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되어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선수는 5선이지만 종로에서는 처음 당선되었기에 저를 소개할 때 '종로초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상은 '종로초선'의원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항상 초선의원처럼 부지런히 국민을 생각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호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정호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의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특히 통신사마다 전봇대 이전비용이 수천만원의 격차가 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통신 3사의 광고가 실제 서비스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비싼 돈을 내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도입 된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미래부의 현장 점검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미래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30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방치된 구조용 와이파이 문제, 통신사 서비스 지역 공개 의무화 추진, 유심(USIM)가격 인하 당부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공공기관의 위법 광고 제재'와 '방사성 폐기물 저감대책'에 관해 작년 국정감사에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이사장이 김포대학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매장 기초시설 공사 및 설비변경에 관한 비용 분담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규모유통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을 발의하여, 국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NGO모니터단이 주시는 우수국회의원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서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 동안 지적하고 강조했던 문제들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범의원 선정 수상 소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선정해주신 17년 전통의 국정감사 모범의원 수상은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날카로운 시선과 높은 관심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시고 고견을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해외 자원외교 실패, 한-중 FTA, 중소기업 동반성장, 원전 안전성 등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적과 비판보다 명확한 근거자료와 확실한 논리,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를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20일의 국정감사에 그치지 않고 365일 '상시국감'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미비점은 정책과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정보위원장/국방위원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수성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또 격려해주시는 NGO 모니터단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12년간 의정활동 중에서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 올해로 4번째입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해 감시하고 비판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과 대안제시 없이 보여주기식, 인기영합식, 단순한 정권비판식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이러한 모습들을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의원들도 긴장하여 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를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서 더욱 큰 역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주신 2015 국감 우수의원 상을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천정배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힘쓰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전남과 나아가 호남권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점검하여 정부에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기조 하에 주거·교통 면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문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방만한 운영상태를 지적하고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왔습니다. 이중 정부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제출과 정책 제안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NGO 모니터단이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대인 총재를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회의원 천정배

<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문 >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7년 전통의 '국감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이 된 것이 더 뜻깊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통신, 과학, 원자력 분야를 꼼꼼히 감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막말 방송, 왜곡편향 방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 방통위의 제재를 이끌어 냈고, KBS·MBC 등이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앞장 서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조사와 이동사가 대리점에 뿌리는 수 조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처음으로 밝혀냈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비정상적인 통신시장의 개혁을 위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직 후 이동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수의원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며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입니다.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국내 제일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17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4선 중진으로써 국가적 과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시했는데 그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1년에 한차례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장국감이 많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수차례 지방을 방문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국회의원들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고된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국정감사 활동을 하나하나 평가해주신 NGO모니터단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국회의원 평가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적인 평가자들을 키워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전문적인 감시자들을 길러내어 전국 각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하느라 노력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있기에 보다 양질의 국정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날카롭게 국정감사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헌신하고 노력한 국회의원들에게는 격려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국회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초심을 지키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문중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중 의원(새누리당, 경기 의정부 (을))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저를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17년 전통의 모니터단 위원 1천여 명이 선택해주셨기에 더욱 기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란 조직에 맞춰 미방위라는 상임위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되는 정치적 쟁점사항이 많았던 터라 19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방위원장에 선출됨과 동시에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 직접 중재안을 내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여야를 설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KBS 수신료 인상 문제, 공영방송·포털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 책임의 문제, 소관기관장의 이념편향적 발언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행히 여야 미방위원들께서 소모적인 정쟁대결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질의를 해주심으로써, 우리 상임위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기초과학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ICT 기술과 서비스 융합과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초과학연구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하되 정부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기초연구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연구관리전문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와 세종청사 간 화상 국정감사를 실시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기술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며, 3D프린팅 산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D프린팅 기술 및 산업 인프라 육성을 위

한 정부차원의 지원내용 등을 담은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15.11.30 국회본회의 통과)했고,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재난구조형 드론 전시회 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경제 실현,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방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부 지역민과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는 홍문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의정부(을) 국회의원 홍 문 종

홍일표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일표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위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과 그 동안의 국정감사기간동안 함께 고생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남짓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시간적 한계 속에서 국정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뤄야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가 미흡할 수 있고, 자칫 정치적 이유로 정쟁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이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실시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일선 담당자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국감', '현장국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소 미진한 점도 있겠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발굴한 여러 조사와 연구과제는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계기로 국민을 향한 바른 정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국회의원

국정감사 2015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황 주 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흥 · 영암 · 강진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기쁘고 고맙습니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이끌고 계신 김대인 총재님과 홍금애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평가를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권위 있고 정통성 있는 평가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평가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정치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여 부족한 점은 지탄하고, 또 잘한 일은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농해수위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조용한 상임위지만, 우리 농어민의 삶이 걸린 민생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인하를 막아내고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재고 결의안 등을 여당의 반대를 조정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롯데상사의 도정사업 진출을 막은 것을 꼽고 싶습니다. 더불어 언론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선봉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피감기관들의 방만경영과 기강해이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이끈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벅찬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감시와 비판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